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6년 3월 20일(금)
---(음력 2월 2일)---
Пятница
20 марта 2026 г.
№ 11 (12178)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3월 25일은 러시아에서 문화 분야 근로자의 날로 지정되어 있다. 사할린주 일반과학도서관의 최애순 독서통합서비스부서 수석 사서는 한평생을 도서관 일에 바쳤다. 비로비드잔 문화직업학교와 하바롭스크 문화대학을 졸업한 그는 이미 31년째 도서관에서 일하고 있다. 그동안 여러 번 표창을 받았고, 작년에는 유즈노사할린스크 시 두마(의회)의 감사장을 받았다. 최애순 씨는 도서관 내에서 응용작품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다. (취재: 이예식 기자)

사할린주, 크림 반도 재통합 기념일 맞아 애국 행사 개최

사할린주에서 크림 반도의 러시아 재통합 12주년을 기념하는 다채로운 애국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사할린주 청년사업청과 여러 사회단체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청년 운동 단체 회원, 학생, 유소년군(유나르미야) 대원, '실버 자원봉사자' 등 다양한 세대의 시민들이 참여해 역사적 사건의 의미를 되새겼다.

사할린주 청년사업청은 이번 프로그램이 시민 의식 고취와 역사적 기억 보존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기념 행사는 공식 기념일 전날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예지나야 러시아' 통합당 사회지원 본부에서는 특수군사작전 참전용사들을 응원하는 '군인에게 보내는 편지' 캠페인이 진행됐다. 같은 장소에서 실버 자원봉사자들은 위장망 짜기 마스터클래스를 진행하며 함께 승리를 위한 공동의 노력에 동참했다.

또한 주 전역에서는 '단결의 색들' 캠페인

이 펼쳐져 '승리의 자원봉사자들' 운동과 '#우리는함께' 본부 활동가들이 거리에서 주민들에게 러시아 국기 색깔의 리본 5,000여 개를 나누어 주었다.

가장 중요한 행사는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승리' 박물관-기념관 단지 앞에서 열린 플래시몹이었다. 200여 명의 학생, 시민, 유소년군 대원 등이 '크림'이라는 글자를 이루고 대형 삼색기를 펼쳤다.

행사의 마지막은 전국 캠페인 '타브리다의 수수께끼'의 일환으로 '마야크' 아트 공간에서 열린 지식 퀴즈였다. 학생들은 크림의 역사, 문화, 지리에 대한 지식을 겨뤘다.

행사 참가자들은 우리의 힘은 단결에 있으며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자 하나의 가족임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들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발의한 국가 프로젝트 '청년과 어린이'의 일환으로 진행되어 역사적 가치 계승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사할린 실업자, 창업 지원금 최대 12만 8000루블리 받는다

사할린주의 실업자들을 위한 창업 지원금으로 총 800만 이상 루블리가 배정됐다. 지원금 12만 8000루블리가 일회성으로 지급되며, 젊은 예비 창업자들은 뷰티 서비스, 교육, 자동차 수리, 제과업 등의 분야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데 이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

주 인력센터는 지원금 신청 지원뿐만 아니라 창업 적성 평가, 사업 계획 수립 컨설팅, 필요시 무료 교육 연계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엘레나 사벨리에와 사할린주 인력센터장은 이러한 접근 방식이 창업자가 아이디어 구상부터 실제 사업 개시까지의 과정을 더욱 자신감 있고 안정적으로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돕는다고 설명했다.

지원금 수령 후 의무 사항은 최소 2년간 사업을 유지하는 것이다. 2025년에는 인력센터의 지원을 받은 주민 65명이 주로 농업, 수산 가공, 제과업, 미용·교육·스포츠·생활 서비스업 등에서 창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신

유즈노사할린스크 시 병원 혈관센터, 러시아 최우수로 선정

유즈노사할린스크 안쿠지노브 시립병원의 일차 혈관센터가 러시아 최고의 전문 상을 수상했다. 제4차 전러시아 신경학회에서 발표된 경연 결과, 이 센터는 전국 700여 개 일차 혈관센터 중 1위를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

일차 혈관센터는 뇌졸중(급성 뇌혈관 장애) 및 심근경색(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환자에게 응급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전문 의료 부서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시 병원의 이 센터는 뇌졸중과 심근경색 환자들을 대상으로 4년간 치료 성과를 평가받았으며, 장비 보유 현황부터 전문의료진 구성, 혈전용해치료 및 수술 시행 건수, 사망률과 일상생활 복귀율 등 모든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사할린에서 전국 장애인 알파인 스키 선수권 대회 개최

오는 3월 23일부터 26일까지 유즈노사할린스크의 '고르니 위즈두흐' 스키장에서 전국 장애인 알파인 스키 선수권 대회가 열린다.

근골격계 장애를 가진 선수들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에는 패럴림픽 수상자들을 포함한 러시아 정상급 선수들이 출전해 회전, 대회전, 슈퍼대회전, 슈퍼복합 종목에서 기량을 겨룬다. 특히 적응형 (파라)복슬레이 시범 경기도 펼쳐져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즈나니예' 협회 사할린 지부, 2026년 사업 계획 논의

3월 17일(화) 왜체슬라브 알렌코브 사할린 주정부 부총재 주재로 '즈나니예(지식)' 협회 지역 지부 감독 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는 2025년 활동 성과를 평가하고 2026년 사업 계획을 논의했다.

작년 한 해 동안 사할린 지역의 18개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1,610회의 교육 행사를 개최해 목표 대비 160%를 달성했다. 2026년에는 최소 1,500회 이상의 행사를 개최하고, 지방자치단체 내 활동을 강화하며, 강사 네트워크를 100명 이상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할린산 단새우 86톤, 안전성 검사 통과

1월 초부터 3월 17일까지 사할린 지역 단새우(북쪽훈새우) 8개 배치, 총 86.7톤이 러시아 수의식품위생감독청 산하 시험실의 엄격한 품질 검사를 통과했다.

사할린 생산업체가 가공한 냉동 새우들은 미생물, 관능검사, 기생충, 단백질 품질 등 20개 항목에 걸쳐 총 160건의 정밀 검사 결과, 모든 제품이 기준을 충족해 안전성이 확인됐다. 검사 결과는 발주처와 감독청에 통보됐다.

새고려신문

2026년 상반기 신문 구독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6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1개월 구독료는 147,66 루블리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가족을 구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심리학자 김 스웨틀라나

새해 연휴 때 심리학자들의 말을 듣고 꿈을 그려보는 시간을 갖는 모임이 있었다. 50대의 사할린동포 여성으로서 이름은 김 스웨틀라나, 그녀는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상담 심리학자가 되는 계기를 재미있게 풀어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가 참석자들에게 하는 따뜻한 위로의 말은 마음에 와닿았다. 지난 주말에는 비공식 사업자 및 자영업자 모임을 찾아간 자리에 김 스웨틀라나 씨를 다시 만나면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다.

그는 행복을 가르치고, 행복을 느끼게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

스웨틀라나 씨는 사할린주 돌린스크 구역 비코브 마을에서 1974년에 태어났다. 아버지는 탄광에서 성실히 일하시는 분이셨고, 공로가 있어 국가로부터 '공훈 광부'라는 칭호까지 받았다. 어머니는 25년을 상업에 헌신하셨다. 훌륭한 식품 판매원으로 인정받아 표창도 많이 받았고, 돌린스크의 우수 판매원으로 여러 번 선정되기도 했다. 스웨틀라나의 인생을 바꾸게 된 계기는 어머니가 판매 분야에서 25년을 맞아 '무역의 날'을 기념해 바닷가 파티에 나간 날이었다. 그날 어머니는 바다에 빠진 여자아이를 구하려다 그만 자신의 목숨을 잃으셨다. 44세였던 당시 어머니는 식품 가게 개업 준비를 마치고, 다음날 직접 운영을 시작해야

했다.

어머니와 관계가 깊었던 22세의 스웨틀라나에게 어머니를 잃은 아픔과 비극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다. 당시 스웨틀라나는 좋은 일자리 제안을 받고 모스크바에서 새 삶을 꾸릴 계획이었으나 돌아가신 어머니 대신 가게를 운영하는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스웨틀라나에게 큰 상처였지만, 동시에 그녀를 성장하게 만든 계기이기도 했다. 그리고 어머니가 남기신 가게를 9년이나 운영해갔다. 이 사업을 하면서 결혼도 하고, 아들 셋을 낳았다.

어렸을 때 스웨틀라나의 꿈은 유치원 선생님이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사범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유치원에 취직을 했다. 일도 마음에 들었지만, 나라가 경제난에 빠진 90년대, 일은 하는데 월급은 받지 못했다. 그래서 그녀는 여러 직업을 경험하면서 여러 직업 자격증도 갖게 되었다. 수질정화를 위해 유해 화학 물질을 다루는 일도 해보았고, 선교사에게서 한국어도 배웠으며, 함께 섬을 돌아다니기도 했고, 한국에서 열린 세계 한민족 청소년 대회에 참가한 적도 있었다. 인생을 알아가던 그녀에게 모든 것은 흥미로웠다.

스웨틀라나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된 어머니의 죽음 이후 사업을 배우게 되면서 어느 날 다른 사업을 알



려주는 선생을 만났다. 이 사업에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깨닫고 스스로 심리학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모스크바 인문학 아카데미에서 일반 심리학을 전공했다. 당시 세 아들의 엄마로서, 사업가로서 살기 바빴지만 그녀는 공부를 해냈다.

교육에 대한 의욕이 넘친 그녀에게 심리학 공부는 큰 재미로 다가왔다. 또한 이름난 외국 심리학자가 강연하는 '행복' 세미나에 참가할 기회를 얻어 인생의 큰 행운을 잡았다고 생각했다. 이후 그녀는 그간 얻은 지식으로 자신만의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가족관계가 틀어진 여러 가정을 회복시키는데 도움을 주기도 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되살

리고, 발전시키는 일에서 그녀는 사랑과 행복을 느낀다고 한다.

현재 그녀는 심리학자로서 개인 상담은 물론, 청년주도 센터에서 강연을 하고, 장애 아동 및 청소년들과도 꾸준히 교류하고 있다. 무료봉사로 상담을 해주는 일도 적지 않다. 특히 그녀는 아이들의 그림을 분석하는 독특한 방법으로 상담을 진행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심리학자로서 여러 공공기관에서 감사장을 받았고, 몇 년 전에는 '올해의 도시 우수 상담 심리학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녀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역시 가족이다. 스웨틀라나와 항상 한편이 되어주는 남편은 가정의 든든한 가장이다. 세 아들 중 막내 쌍둥이 아들들은 현재 모스크바에서 공부하는 동시에 배우 및 모델로 활동하며 각종 광고와 영화에 출연하고 있다. 모스크바에 있는 아들들과는 거의 매일 통화한다. 큰아들은 사할린에서 회사원으로 일하며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한다.

"제 아이들은 절대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험담하지 않아요. 그건 제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점이에요. 그들은 어릴 때부터 제가 사업하는 모습을 보며 자라서, 사람과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배웠거든요."라고 스웨틀라나는 말한다. 그리고 "저는 부자입니다. 아이들의 사랑을 느끼

거든요."라고 덧붙었다. 그러면서 최근 아들들이 "엄마가 좀 변했어요. 달라졌어요."라고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말하며 기뻐해 준다고 했다.

그녀는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날 때 큰 기쁨을 느낀다고 한다. 그리고 그런 사람과 지식, 사랑과 따뜻한 온정을 나누고 싶어 한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을 좋아한다.

여행을 즐기는 사람으로서 세계 30개국을 돌아다녔다. 독서를 즐기고, 공연, 전시, 무용 등을 관람하는 것도 무척 좋아한다. 문화생활은 그녀에게 에너지를 주는 원천이다.

현재 그녀는 또 하나의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저는 앞으로 '나-가족'이라는 이름의 관계학교를 열고 싶어요. 결혼을 앞둔 사람들이나 가족을 이루고 싶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싶어요. 제 생각에는 그 어떤 관계에도 배움이 필요해요. 그런 교육을 제공하고 싶어요."라고 그녀는 말한다.

인생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모든 순간을 자신을 성장시키는 기회로 삼아왔다. 어머니의 용기와 사랑을 이어받아,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보듬고 치유하는 심리학자로서 그녀는 오늘도 자신의 자리에서 빛나고 있다.

(배순신 기자)

이 모 저 모

유즈노사할린스크 아방가르드 축제 개막... 어린이전으로 막 올려

'예술 공장' 아트갤러리에서 보조금 지원 프로젝트 '사할린 아방가르드 축제' 브리핑과 어린이 공모전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축제 예술감독이자 체호브 책박물관 부관장인 이완 치르코브가 행사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사할린 아방가르드'는 전시, 강연, 마스터클래스, 아트 퀘스트, 영화 상영, 창작자와의 만남 등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의 첫 주요 행사는 '어린이 눈으로 본 아방가르드' 공모전이었고 문화미술박물관 홍보실이 전했다.

제1회 '사할린 아방가르드 축제'는 2025년에 열렸으며, 올해 행사는 대통령 문화 이니셔티브 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다.

'어린이 눈으로 본 아방가르드' 공모전에는 사할린 지역의 어린 미술가들이 출품한 200점이 넘는 작품이 접수됐다. 이 작품들은 사할린주 박물관협회가 주 문화부의 지원을 받아 '예술 공장'에 전시했다. 아이들과 학부모, 지도 교사들은 현대 미술에 대한 독특한 시각을 선보였다. 예를 들어 '창의적 섬' 동아리 소속 어린이들은 손으로 직접 그림을 그린 의상 컬렉션을 선보였다.

실험적인 컬렉션 패션쇼에 이어 공모전 수상자 발표가 진행됐다. 심사위원단은 세 개 연령대로 나눠 우수작을 선정했다.

7~10세 부문: 크세니아 모로조와, 「호숫가의 양귀비」 / 다니일 코스틴, 「진홍빛 도시」 / 안나 리, 「울빼미 고양이 밤」

11~13세 부문: 나르기즈 파르지에와, 「자화상」 / 니콜 김, 「목동의 영혼」 / 다니일 코르펜코, 「전사」

14~17세 부문: 카테리나 코노발로와, 「연락선」 / 바르바라 두보위츠카야, 「왜가리」 / 소피야 이와노와, 「마레브나」

детская выставка открыла фестиваль авангард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Брифинг грантового проекта «Фестиваль авангарда на Сахалине» и детский конкурс провели в арт-галерее «Художественная фабрика».

В рамках встречи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руководитель

фестиваля, замдиректора музея книги Чехова Иван Чирков представил программу мероприятий.

Сахалинский авангард представят в формате выставок, лекций, мастер-классов, арт-квестов, кинопоказов и творческих встреч. Первым ярким событием проекта стал конкурс «Авангард глазами ребенка»,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литературно-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музея.

Первый «Фестиваль авангарда на Сахалине» прошел в 2025 году, а нынешний реализуют при поддержке Президентского фонда культурных инициатив.

Конкурс «Авангард глазами ребенка» объединил более 200 работ юных художник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х работы представили на выставке в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фабрике», которую организовала Ассоциация музее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и поддержке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культуры 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Дети, их родители и педагоги показали нестандартный взгляд на современное искусство. Например, ребята из объединения «Творческий остров» создали коллекцию вручную расписанной одежды.

После показа экспериментальной коллекции объявили победителей конкурса. В состав жюри вош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Торгового дома «АМИКС», арт-про странства «РОСТ» и музея книги Чехова «Остров Сахалин». Они выделили лучшие работы в трех возрастных категориях:

7–10 лет: Ксения Морозова «Маки у озера», Даниил Костин — «Алый город», Анна Ри — «Ночь совы-кошки»;

11–13 лет: Наргиз Фарзиева — «Автопортрет», Николь Ким — «Душа пастуха», Даниил Корпенко — «Воин»;

14–17 лет: Катерина Коновалова — «Паром», Варвара Дубовицкая — «Цапля», Софья Иванова — «Маревна».

오래된 책을 건축 자재로: 사할린에서 헌책 활용한 단열재 생산

사할린주에서 낡은 책과 종이를 재활용해 건설용 단열재로 만드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지역 고품폐기물 관리 기관은 최근 현지 기업 '산예코'에 800kg 규모의 첫 폐지를 전달했으며, 해당 폐지는 단열재 생산에 활용될 예정이다.

폐지는 파쇄기와 분쇄기를 거쳐 미세한 입자로 가공된 뒤 특수 용기에서 혼합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생산된 단열재는 현무암 관과 유사한 특성을 지니며, 한 포대를 만들기 위해 중

이 13kg이 필요하다.

재활용 대상은 상품성과 독자적 가치를 잃은 낡은 출판물로 제한된다. 광택 잡지와 아트지는 재활용 공정에 적합하지 않다.

올레그 시야놉스키 지역 고품폐기물 관리기관 부사장은 "재활용 원료를 활용한 제품이 지역 내에서 생산·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폐지 수거는 유즈노사할린스크 예멜리야노와 거리 14번지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뤄지며, 점심시간은 오후 2시부터 3시까지다. 이번 사업은 러시아 국가 프로젝트 '생태적 복지'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Старые книги на стройку: на Сахалине ветхую литературу превращают в утеплитель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ают вторую жизнь старым книгам и бумаге. Региональный оператор по обращению с ТКО передал местному предприятию «СанЭко» первую партию макулатуры весом 800 кг. Из нее начнут производить строительный утеплитель. Процесс переработки выглядит так. Макулатура проходит через шредер и дробильный станок, превращаясь в мелкую фракцию. В специальном бункере масса перемешивается.

На выходе получается утеплитель, который по свойствам сопоставим с базальтовыми плитами. Для производства одного мешка материала требуется переработать 13 кг бумаги.

В переработку идут только ветхие издания, утратившие потребительские качества и не имеющие ценности для читателей. Глянцевые журналы и мелованная бумага для этого не подходят.

Заместитель гендиректора по обращению с отходами Олег Шияновский пояснил, что региональный оператор по обращению с отходами ставит в приоритет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местными переработчиками.

«Наша цель — создать условия, чтобы продукция из вторичного сырья производилась и развивалась в регионе», — дополнил Шияновский.

Сбор макулатуры организовал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 9:00 до 20:00 (обед 14:00–15:00) по адресу: улица Емельянова: дом № 14.

Переработку вторичного сырья в регионе ведут в рамках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Экологическое благополучие», инициированного президентом РФ Владимиром Путиным.

(8면에 계속)

H2, F4 비자통합 한달... “현실에 맞게 제도 개선해야”

전문가들, 13일 제1차 다(多)가치포럼서 통합 이후 혼선·정착 과제 집중

방문 취업비자(H-2)와 재외동포(F-4) 비자 통합 시행 한 달을 맞아 열린 한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봉사시간 기준과 취업 제한, 건강보험, 가족 체류·취업 문제 등 세부 제도는 현실에 맞게 조정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쏟아냈다.

13일 대림도서관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다(多)가치포럼’에서는 ‘H-2·F-4 통합이 동포의 삶에 미치는 변화와 기대’를 주제로 법무부와 재외동포청, 동포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비자 통합 이후 현장 혼선과 후속 과제를 집중 점검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전춘화 다(多)가치포럼 대표는 “법무부가 지난 2월 14일 설명회를 열었지만 동포사회 내부에 여전히 질의와 확인 요구가 많다”며 “통합 이후 동포 삶에 어떤 변화가 생겼고 무엇을 더 보완해야 하는지 논의하기 위해 같은 주제를 다시 다루게 됐다”고 포럼 취지를 설명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강영우 법무부 이민통합과장은 H-2·F-4 통합의 목적을 ▲차별 해소 ▲체류활동 보장 ▲사회통합으로 설명했다. 강 과장은 “미국·캐나다 동포와 중국·러시아·CIS 동포 간 차별 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다”며 “이번 통합은 동포 간 제도적 차이를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강 과장에 따르면 2010년 37만 명 수준이던 외국국적 동포는 현재 86만 명으로 늘어 전체 체류 외국인 270만 명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통합의 직접 대상인 H-2 체류자는 시행 전 기준 약 8만 명 수준이다. 법무부는 2월 12일부터 H-2 신규 사증 발급을 중단했고, 기존 H-2 소지자는 만료일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하이코리아를 통해 F-4 전환 신청을 받고 있다.

7면에 계속)

광복 80주년 맞아

후손 확인을 기다리는 러시아지역 독립유공자

현재 한국 국가보훈부 독립유공자는노령계열 175명이며 그 중 후손 확인을기다리는 독립유공자 137명이다.

김 성 무

관리번호	956304 후손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성명	김성무	한자	金成武
이명	金聖武	성별	남
생년월일	(1879)	사망년월일	미상
본적	평안남도 평양 장천		

공훈록

1902년 9월 22일 안창호(安昌浩)·박선겸(朴善謙)·이대위(李大爲)·위영민(韋永敏)·박영순(朴永淳)·홍종술(洪鍾述)·김병모(金炳模)·전동삼(全東三)과 함께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한인들 간의 상호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상항친목회(桑港親睦會) 조직에 참여하였다.

1904년 하와이로 이주한 한인들 가운데 일부가 미국 본토로 이주하면서 교민들이 늘어나자, 1905년 4월 5일 상항친목회 조직을 확대하여 공립협회를 조직하였다. 공립협회는 동족상애와 환난상부, 항일운동을 설립 목적으로 하며, 기관지인 공립신보(共立新報)를 발행하였다. 1905년 1월 상항친목회 회장을 역임하고, 같은 해 4월 5일 공립협회가 조직되자 공립협회 상항지방회 회장에 선임되어 1907년 1월까지 상항지방회 회장으로 활동하였다.

1908년 공립협회가 러시아 연해주와 중국 만주 지역에 지회를 설치할 것을 결의하자, 이강(李剛)과 함께 파견되어 러시아 연해주 수청(水淸)과 치타 지방에 원동지회를 설립하고, 블라디보스토크와 만주리(滿洲里)에 만주지회를 설립하였다. 1908년 12월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한 후, 같은 해 11월 이강, 정재관(鄭在寬)과 함께 태동실업주식회사 블라디보스토크 임시사무원으로 임명되었다.

태동실업주식회사는 1909년 2월 공립협회가 하와이 한인합성협회(韓人合成協會)와 통합한 후 대한인국민회(大韓人國民會)가 창립되면서 독립군 기지를 개척하고, 재러한인들의 실업을 진흥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이다. 1910년 2월 중국 흑룡강성(黑龍江省) 밀산현(密山縣) 봉밀산자(蜂密山子)로 파견되어 독립운동 해외기지 건설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여 농장 건설과 학교 설립 등의 활동에 힘을 기울였다.

같은 해 9월 안창호, 이강, 정재관, 이갑(李甲), 이종호(李鍾浩), 안정근(安定根) 등과 함께 해외 한인들의 귀환과 무기 수송 등에 이용하기 위해 최봉준(崔鳳俊)으로부터 선박 구입을 논의하였다. 이듬해인 1911년 안창호·이대하(李大夏)·신채호(申采浩)·유인석(柳麟錫) 등과 함께 중국 흑룡강성 밀산현 봉밀산자에 한인 마을을 건설하고 신한민회(新韓民會)를 조직하여 해외 독립운동 기지를 개척하기 위해 힘을 기울였다. 1912년 1월 안창호 등과 함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위치한 한민학교(韓民學校)에서 국권 회복과 산업진흥, 독립군 등을 주제로 연설을 하며 항일의를 고취하는 데 힘썼다.

정부는 2021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신한민보(新韓民報)(1909. 2. 17, 4. 7, 11. 3, 1910. 1. 5, 2. 3, 16. 5, 11, 10. 19, 1911. 5. 17)

· 불령단관계잡건(不逞團關係雜件)-조선인(朝鮮人)의 부(部)-재서비리아(在西比利亞)(1)(선인 근황 보고의 건, 재포조총영사(在浦潮總領事), 1910. 9. 27, 노령(露嶺)에서의 조선인 수뇌부(首腦部) 이전설(移轉說) 및 이범윤(李範允)을 포박(捕縛)하려는 사정에 관한 건, 재포염총영사(在浦鹽總領事), 1910. 9. 29, 기선(汽船) 준창호(俊昌號) 매입(買入)계획에 관한 건, 재포염총영사(在浦鹽總領事), 1910. 9. 29, 배일(排日) 조선인(朝鮮人) 명부(名簿) 진달(進達)의 건, 재포염총영사(在浦鹽總領事), 1910. 10. 8, 조거(鳥居) 통역관(通譯官) 보고서(報告書) 사본(寫本) 송부의 건, 재포염총영사(在浦鹽總領事), 1910. 10. 24, 조선인(朝鮮人)에 관한 정보(情報) 송부(送付)의 건, 재포염총영사(在浦鹽總領事), 1910. 11. 10, 조선인에 관한 정보 송부의 건(별지), 재포염총영사(在浦鹽總領事), 1910. 11. 17)

· 불령단관계잡건(不逞團關係雜件)-조선인(朝鮮人)의 부(部)-재서비리아(在西比利亞)(2)(1월 13일 이후 블라디보스토크지방 조선인(朝鮮人)의 동정(動靜), 재포염총영사(在浦鹽總領事), 1911. 1. 28, 안공근(安恭根)이 기획하고 있는 사내(寺內) 총독(總督) 암살(暗殺) 풍설 운운에 관한 건,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 1911. 2. 1, 조선인(朝鮮人)의 동정(動靜)에 관한 정보(情報) 송부(送付)의 건(件),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 1911. 2. 1, 조선인의 동정에 관한 정보 진달의 건,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 1911. 2. 23, 3월 11일 이후 블라디보스토크지방 조선인 동정,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 1911. 3. 24, 3월 17일 이후 블라디보스토크지방 조선인의 동정,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 1911. 3. 29)

· 불령단관계잡건(不逞團關係雜件)-조선인(朝鮮人)의 부(部)-재서비리아(在西比利亞)(3)(조선인 근황에 관한 정보 송부의 건,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 1911. 8. 27, 포조(浦潮) 방면 재주(在住) 선인(鮮人) 최근 정보, 블라디보스토크 통역관, 1912. 1. 19)

· 불령단관계잡건(不逞團關係雜件)-조선인(朝鮮人)의 부(部)-재서비리아(在西比利亞)(4)(1912년 11월 조(調) 재외(在外) 불량선인(不良鮮人)의 언동(言動), 조선주차(朝鮮駐節) 헌병대사령부(憲兵隊司令部), 1913. 3. 7)

· 불령단관계잡건(不逞團關係雜件)-조선인(朝鮮人)의 부(部)-재서비리아(在西比利亞)(12)(배일선인유력자명부 이동(異動)에 관한 건,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 1921. 6. 4)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6) 제8집 462, 659, 660, 671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6) 제14집 763면

· 통감부문서(국사편찬위원회, 1999) 제7권 313면

· 한국근대사자료집성(국사편찬위원회, 2002) 제3권 179, 571면

·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국사편찬위원회, 2002) 제2권 63~82면, 제4권 182~198면

· 미주국민회자료집(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 2005) 제4권 184면

·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국사편찬위원회, 2009) 제35권 403면

묘소

묘소 위치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편집 이철수)

이번 호부터 본지에 연재하게 된 소설 『화태, 가라후토, 사할린』은 김이정 작가가 사할린 동포들의 삶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집필한 작품이다. 이 소설은 새고려신문사와 인연이 깊은 김민정 희곡 작가의 협조로 실리게 되었다. 김민정 작가가 직접 김이정 소설가로부터 원고를 받아 본지에 전달하며 이번 연재가 성사되었다.

역사의 아픔을 기록하는 소설가 김이정은 1960년 대한민국 경상북도 안동에서 태어났다. 1994년 <문화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이 당선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30년 동안 한국 현대사의 비극과 그 속에서 상처 입은 개인들의 이야기를 꾸준히 써 온 작가다.

대표작인 장편소설 『유령의 시간』은 작가 스스로 이 소설을 쓰기 위해 작가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작품이다. 소설은 한국현대사의 가장 비극적인 전쟁과 분단의 과정을 온몸으로 통과해 온 한 인간의 모습을 섬세하게 그려내고 있다. 자신이 선택한 이상주의 때문에 가족을 모두 잃고 이 사회에서 유령처럼 살아가야 했던 한 인간을 통해 분단의 비극과 인간의 존엄성을 묻는 이 작품으로 제24회 대산문학상을 수상했다.

김이정 작가는 역사의 거센 바람에 휩쓸리거나 밀려난 사람들의 목소리를 따뜻한 문장으로 전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주요 작품으로는 소설집 『도둑계』, 『그 남자의 방』, 『네 눈물을 믿지 마』, 장편소설 『길 위에서 중얼거리다』, 『물속의 사막』, 『유령의 시간』이 있다.

이 소설은 2023년 계간지 <문학의 오늘>에 발표되었다.

(본사 편집부)

화태, 가라후토, 사할린 김이정

4월이구나. 여긴 겨울내 쌓인 눈이 반도 녹지 않았지만 내 고향에선 온갖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할 때구나. 해마다 4월이 되면 떠올리던 풍 경이 이 가물가물한 눈에도 어김없이 떠오른다. 아니 4월뿐만 아니라 일 년 내내 그곳을 떠올리며 살았다. 지금쯤 살구꽃이 피었겠구나, 눈에 물을 덜 때구나, 보리타작을 하겠구나, 감자를 켈 때구나, 깨를 털 때 구나, 무밭에 첫서리는 내렸을까, 해마다 절기를 꼽아가며 그곳을 떠 울리곤 했다. 무엇보다 나는 잊는 게 두려웠다, 아니 필사적으로 그곳을 잊지 않기 위해 애썼다. 이 좁고 먼 섬에서 왜 그토록 고향을 잊지 않으려 몸부림쳤는지 모르겠구나, 쯤야.

동네 뒷산에 제일 먼저 피는 꽃은 진달래였다. 진달래보다 먼저 매화 와 생강나무가 꽃을 피우긴 했지만 가난한 우리 동네엔 매화라곤 딱 한 그루가 구장집 담 너머에 있을 뿐이었다. 생강나무도 깊은 산으로 가야 겨우 볼 수 있을 정도로 동네 뒷산은 황폐했다. 너나없이 떨감을 굶고 가지를 꺾는 통에 산엔 나무가 남아나질 않았다. 석근 회갈색 나무숲이 겨우 내 얼다 녹다를 반복한 후 흙이 스펀지처럼 폭신해질 때쯤 분홍 진달래 봉오리가 입술연지처럼 뾰족하게 나오면 비로소 봄이 시작되었다.

열한 살 그 봄에도 진달래꽃이 피자 난 친구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갔다. 회갈색 숲에 분홍 물감을 점점이 뿌려놓은 것 같은 진달래에 흠뻑했지만 한편으론 무섭기도 했다. 산에 사는 문둥이가 진달래 따라 오는 아이들을 잡아서 산채로 배를 갈라 간을 빼먹는다고, 동네 오빠들이 겁을 주었다. 하지만 나는 그 새콤한 진달래를 포기할 순 없었다. 치마 폭 가득 탄 진달래꽃을 한 움큼 털어 넣자 상큼한 즙이 입 안 가득 차올랐다. 마른입을 적 시기에 더없이 좋은 간식이었다.

그날도 한참 동안 진달래를 쫓아다니다 보니 언제부턴가 나는 혼자가 돼 있었다. 덜컥 무섭증이 일어 서둘러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나뭇잎 바스락거리는 소리에도 온몸의 솜털이 쭈뼛 섰다. 중턱의 소나무 숲을 지날 때였다. 나는 굽은 마사토 길에서 미끄럼이라도 타듯 쪽 미끄러졌다. 발목이 반대 방향으로 꺾였다. 무릎과 손바닥은 굽은 마사 토에 굽혀 빗살무늬 상처엔 핏방울까지 맺혀 얼얼했다. 일어나려 했지만 발목에 힘을 줄 수 없었다. 아무리 둘러봐도 친구들은 보이지 않았다. 해는 이미 소나무 숲을 지나 곧 산 너머로 넘어갈 기세였다. 눈물이 속 나올 정도로 아팠지만 난 소리도 지르지 못했다. 소리 내 울면 문둥이가 들을까 봐 입을 다문 채 눈물만 툽툽 흘렸다.

그때였다. 먼산 가는 길에서 석구가 지계를 지고 나타났다.

(다음호에 계속)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Марина Ким представила документальный фильм «Корейский спецназ»

12 марта в Музее Победы (Москва) состоялся премьерный показ документального фильма «Корейский спецназ». Автор киноленты — журналист, депутат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умы Марина Ким открыла завесу тайны над корейскими подразделениями, которые помогли ВС РФ освободить Курскую область в 2025 г.

Части спецназа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й Армии КНДР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и особенности боевой (в том числе уникальной физической и огневой) подготовки и быта в условиях фронтовой российской реальности.

Фильм подробно рассказывает о том, как готовились бойцы, как был устроен их быт и, главное, почему они беззаветно сражались бок о бок с российскими солдатами.

Вот что пишет Марина Ким в своем МАХ-канале.

«На этих выходных мой документальный

фильм «Корейский спецназ» вышел в открытый доступ.

Теперь его можно посмотреть онлайн — на платформе Okko и на медиаплатформе «Смотрим».

Это важная для меня работа. Фильм рассказывает о фронтовом братстве, о мужестве бойцов подразделений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й армии, которые помогли нашим военным освободить Курскую область от подразделений ВСУ. О людях, которые оказались рядом в решающий момент — плечом к плечу, в одном строю.

Я верю, что такие истории должны быть услышаны. Должны оставаться в памяти. Потому что именно правда о подвигах и взаимной поддержке формирует силу общества и уверенность в будущем.

Посмотрите фильм. Для меня это действительно важно.»

Моя встреча с Малой Родиной

Юрий К., 68 лет

Я уроженец Сахалина. Но в возрасте 7 лет мои родители, прихватив меня и два больших чемодана, переехали, как говорят сахалинцы, на материк. С тех пор я не был на острове, но всегда живо интересовался всем, что связано с Сахалином. И вот прошло больше 20 лет. Я закончил институт, стал работать в НИИ, занимаясь различными аспектами исследования лососевых видов рыб. И вот однажды, несколькими сотрудниками нашей лаборатории, в том числе и мне, было предписано поехать в двухмесячную экспедицию на Сахалин, на Калининский лососевый рыболовный завод.

Прилетели мы в середине марта, и если в Москве снег почти растаял, везде были лужи подтаявшего снега, то на острове зима еще была в самом разгаре, что сразу же вызвало из памяти моей далекие детские воспоминания о высоких сугробах, в которых дедели тоннели до ближайшего туалета; что когда внезапно началась пурга, то к школе подъезжали машины из военного гарнизона и развозили детей по домам; как я прыгал с крыши сарая в эти высокие сугробы; как ловил красноперку в речке с необычным названием Суся. Все это осталось в глубине моей детской памяти, но было спрятано так далеко, что иногда казалось выдуманным.

И вот, спустя много лет я попал в совершенно другую, непривычную для себя природную и социальную среду. Калининский рыболовный завод находился между городами Холмском и Невельском в глубоком распадке. Все работники предприятия — это 5-6 семей и до ближайшего населенного пункта километров 10-15. Местное население встречало нас очень радушно, приглашали в гости и мы, в благодарность за теплый прием, за вкусный ужин с горячей, дымящейся картошкой, с солеными грибами, красной икрой и кетой холодного и горячего копчения, да все это под холодную водочку, поочередно рассказывали одни и те же новости и последние светские сплетни. Однако, скоро новости закончились и начались наши трудовые будни.

Я давно заметил, что в замкнутых пространствах, будь это морское судно или небольшой населенный пункт, затерянный в лесах или горах, время идет по своему устоявшемуся ритму. Для жителей этого поселка индикатором времени была баня. В субботу с утра растапливалась печь и после обеда сначала мылись шли женщины, а вечером — мужчины. Парилка была замечательной, держала жар до 120 градусов. После парилки я нырял в бассейн с ледяной водой или валялся в сугробе, обтираясь чистейшим снегом до тех пор, пока тысячи иголок не начинали покалывать все мое тело. И тогда я опять бежал в парную, 3-4 таких захода и в теле появлялись легкость, умиротворение, покой. Потом, наскоро одевшись, я бежал по хрустящему снегу в домик, где меня ждал горячий чай. Днем мы ходили на сопки за ветками лимонника, заваривали его в большом чайнике и после бани с удовольствием восстанавливали водно-солевой баланс в организме.

Скучать не приходилось, работы было много, но каждое утро я по пояс обливался водой из родника с температурой 2-3 градуса и спустя некоторое время с удивлением обнаружил, что у меня отсутствует утренняя заложенность носа, стал более активным, стал меньше замерзать.

Иногда вечером мы овершали пешие прогулки по единственной дороге. Кругом были сопки, поросшие непролазным травянистым бамбуком. Местные предупредили нас о том, что в это время года уже просыпаются голодные медведи. Мы не поверили, подумали, запугивают городских, а напрасно. Однажды, прогуливаясь, дошли по дороге до скалы, которая заставляла сделать резкий поворот почти под 90 градусов. Мы повернули за угол и буквально в 30-50 метрах увидели молодого медведя, который услышав нас, бросился от нас в противоположную сторону. Думаю, что так быстро я не бежал никогда, ни до, ни после. Убегая, я мельком оглянулся и увидел, как в несколько прыжков он перемахнул реку и с невероятной скоростью поднялся вверх по сопке и исчез в кустах. С этого дня наши вечерние прогулки прекратились.

С этой дорогой связан один забавный случай. Из-за резкого поворота дороги, связанного с наличием огромной скалы, периодически случались мелкие дорожно-транспортные происшествия. И дорожники, наконец, приняли решение спрямить дорогу, убрать скалу. Накануне в поселок приехал сотрудник дорожной службы с категорическим предупреждением: с 12 до 15 часов не появляться в районе скалы. Надо ли говорить, что на следующий день к 12 часам у скалы собрались все жильцы поселка. Дорожные рабочие суетливо готовились к взрыву скалы, бригадир, матерясь, пытался разогнать зевак, при этом многие зрители давали ему свои ценные советы. Наконец все было готово. Народ нехотя отошел метров на 300 и ни шагу дальше... Помню, как вначале вся скала вдруг вспучилась, затем до слуха с некоторым опозданием дошел негромкий хлопок, а потом во все стороны со свистом полетели булыжники. И тут народ, как и автор этих строк, опомнился, кинулся искать любое укрытие. К счастью, никто не пострадал.

Незадолго до нашего отъезда мы купили в магазине круто засоленную кету, отмочили ее в родниковой воде до нужной кондиции и в течение двух суток вели непрерывный процесс холодного копчения. Продукт получился отменный, с таким душистым ароматом, что при получении багажа в Домодедово, выяснилось, что кто-то ополовинил нашу поклажу. Я простил неизвестного грабителя, поскольку трудно было устоять перед таким соблазном.

После этого я неоднократно бывал на Сахалине по служебным делам, но эта моя первая встреча с моей Малой Родиной в середине 80-ых, дала мне большой заряд жизненной энергии. А еще я подумал, что при всей широте возможностей родиться в любой географической точке большой страны, мне повезло родиться именно на Сахалине.

Ещё не вечер, старина

ГОДЫ СКАКУНАМИ ВСЁ КУДА-ТО МЧАТСЯ
ИХ БЫ ПРИДЕРЖАТЬ, ДА РВУТСЯ СТРЕМЕНА...
ВСЁ ТРУДНЕЙ В СЕДЛЕ КАК ПРЕЖДЕ УДЕРЖАТЬСЯ
И ВСЁ РЕЖЕ СЛЫШИМ ДЕТСТВА ИМЕНА

припев: ЕЩЁ НЕ ВЕЧЕР, СТАРИНА, ЕЩЁ НЕ ВЕЧЕР
РАСКИНУВ КРЫЛЬЯ КАК КОГДА-ТО СВОИ ПЛЕЧИ,
МЫ ВОСПАРИМСЯ НАД ЗЕМЛЕЙ, СУДЬБОЙ ГОНИМЫЕ
ЕЩЁ НЕ ВЕЧЕР, СТАРИНА, МЫ ОДЕРЖИМЫЕ...

ОСЕНЬ РАЗМЫШЛЕНИЙ ВЕЕТ ЛИСТОПАДОМ,
В РАЗНОЦВЕТЬЕ КРАСОК ВИДИМ МОНОХРОМ
И БОЯЗНЬ ОДНАЖДЫ ПОВСТРЕЧАТЬСЯ ВГЛЯДОМ
РАСПАХНУТЬ КОМУ-ТО, ЧТОБ СОГРЕТЬ, СВОЙ ДОМ

припев: ЕЩЁ НЕ ВЕЧЕР, СТАРИНА, ЕЩЁ НЕ ВЕЧЕР
РАСКИНУВ КРЫЛЬЯ КАК КОГДА-ТО СВОИ ПЛЕЧИ,
МЫ ВОСПАРИМСЯ НАД ЗЕМЛЕЙ, СУДЬБОЙ ГОНИМЫЕ
ЕЩЁ НЕ ВЕЧЕР, СТАРИНА, МЫ ОДЕРЖИМЫЕ...

ГОДЫ СКАКУНАМИ ВСЁ КУДА-ТО МЧАТСЯ,
НО ГОДА ВСЕГДА СВЕРШЕНИЙ ВРЕМЕНА...
НАМ ЕЩЁ КАК ПРЕЖДЕ ЗВЕРЕСТЫ СНЯТСЯ
И УШЕДШИХ ВСЕХ МЫ ПОМНИМ ИМЕНА

припев: ЕЩЁ НЕ ВЕЧЕР, СТАРИНА, ЕЩЁ НЕ ВЕЧЕР
РАСКИНУВ КРЫЛЬЯ КАК КОГДА-ТО СВОИ ПЛЕЧИ,
МЫ ВОСПАРИМСЯ НАД ЗЕМЛЕЙ, СУДЬБОЙ ГОНИМЫЕ
ЕЩЁ НЕ ВЕЧЕР, СТАРИНА, МЫ ОДЕРЖИМЫЕ...

ЕЩЁ НЕ ВЕЧЕР, СТАРИНА, ЕЩЁ НЕ ВЕЧЕР
РАСКИНУВ КРЫЛЬЯ КАК КОГДА-ТО СВОИ ПЛЕЧИ,
МЫ ВОСПАРИМСЯ НАД ЗЕМЛЕЙ, СУДЬБОЙ ГОНИМЫЕ
ЕЩЁ НЕ ВЕЧЕР, СТАРИНА, МЫ ОДЕРЖИМЫЕ...
24.12.2025г.,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Тэхо Чан.

Потребительские приоритеты иностранцев

Сеул, 18 марта — ИА РУСКОР.

Согласно докладу Финансового института Хана под названием «Жизнь по-корейски: карта туризма», из-за корейского контента иностранцы все чаще совершают покупки не в магазинах беспошлинной торговли, а в магазинах с выгодными ценами и ориентированных на получение впечатлений.

По данным института, структура потребления изменилась: вместо покупок в магазинах беспошлинной торговли, ориентированных на китайских групповых туристов, люди стали чаще совершать небольшие покупки в мини-маркетах и придорожных магазинах. Продажи на душу населения в магазинах беспошлинной торговли для иностранцев снизились с 878,9 доллара в третьем квартале 2019 года до 607,9 доллара в третьем квартал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В то же время доля придорожных магазинов постоянно растет: с 45% в 2023 году до 49% в 2024 году.

По мере того как корейский контент проникает в повседневную жизнь, «дейливейшн» (от англ. daily — «ежедневно» и vacation — «отпуск») —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стало

ключевым словом для иностранных туристов, побуждающим их к активному потреблению впечатлений. Среди популярных развлечений — ношение ханбока, скрабирование в банях, иглоукальвание в клиниках традиционной корейской медицины, мастер-классы по макияжу и нейл-арту.

В докладе говорится: «В связи с изменением моделей потребления необходимо обеспечить максимальное удобство для индивидуальных путешественников, расширив систему QR-платежей в основных туристических местах и увеличив количество магазинов с возможностью мгновенного возврата средств, а также запустив сервисы, которые будут составлять гиперперсонализированные маршруты K-Life». Кроме того, отмечается: «Помимо краткосрочного шоппинг-туризма, необходимо качественно улучшить структуру потребления туристов, поощряя долгосрочное пребывание в стране и стимулируя спрос на повторные посещения за счет разработки персонализированного контента, ориентированного на предпочтения отдельных групп».

Протокол о намерениях

Женева, 19 марта — ИА РУСКОР. Южная Корея подписала с шестью агентствами ООН соглашение о намерениях, в котором выражается готовность к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в создании в стране глобального центра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ИИ), сообщила канцелярия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а. Документ был подписан во вторник в Женеве, Швейцария,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министерства науки Южной Кореи и международным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труда (МОТ), по миграции (МОМ), союза электросвязи,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ВОЗ),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ой программы и

развития ООН. Перед этим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Ким Мин Сок совершил двухдневную поездку в США и Швейцарию, чтобы поддержать заявку Южной Кореи на размещение у себя центра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озиционирует хаб как платформу, объединяющую структуры ООН, а также частный 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секторы Южной Кореи для разработки решений глобальных проблем и намерено развивающимся странам и уязвимым группам населения посредством глобаль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области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Президент РК предлагает пересмотреть пенсии для малоимущих

Президент РК Ли Чжэ Мён предложил скорректировать ставки надбавок к базовой пенсии пропорционально уровню дохода. Таким образом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информацию о том, чт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редлагает постепенно смягчить сокращение базовых пенсионных выплат для пар в возрасте 65 лет и старше, если оба супруга получают пенсии. «Супружеские пары, стареющие вместе, не должны сталкиваться с трудностями», - отметил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Я слышал, что бывают даже случаи, когда люди прибегают к фиктивным разводам, чтобы избежать сокращения базовых пенсионных выплат», - добавил он. Бедность остаётся одной из самых серьёзных проблем, с которыми сталкиваются пожилые люди, именно поэтому пришло время пересмотреть существующую пенсионную структуру, - подчеркнул Ли Чжэ Мён.

Проект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бюджета будет готов к концу марта

Правящая Демократическая партия Тобуро 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договорились подготовить и представить в Национальное собрание до конца марта первый в этом году проект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бюджета. Его цель - стабилизация уровня жизни населения и содействие экономическому восстановлению в условиях обострения ситуации на Ближнем Востоке. Об этом сообщил 16 марта представитель правящей партии. Достигнута также договорённость постепенно высвободить из резерва 22 млн 460 тыс. баррелей нефти в течение следующих трёх месяцев на фоне резкого роста мировых цен на топливо. Высвобождение резервов произойдёт в рамках соглашения между 32 странами-членами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энергетического агентства.

В РК продолжается рост денежной массы

В январе текущего года в РК продолжился рост денежной массы. Как сообщили 13 марта в Банке Кореи, денежный агрегат M2, который включает наличные деньги, депозиты до востребования, сберегательные счета, однодневные операции «репо» коммерческих банков, однодневные займы, а также принадлежащие семейным хозяйствам паи взаимных фондов денежного рынка, составил 4 квадриллиона 108 триллионов 900 миллиардов вон (2 триллиона 760 миллиардов долларов). Это на 0,7% больше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едыдущим месяцем. Данный показатель неуклонно рос с апреля прошлого года, прежде чем в ноябре впервые зафиксировал снижение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едыдущим месяцем. В основном рост обусловлен валютными депозитами корпораций и домохозяйств, такими как долларовые депозиты банков. В частности, экспортно-импортные компании увеличили депозиты, связанные с торговыми операциями, - заяви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Банка Кореи.

K-Pop Demon Hunters удостоен двух премий «Оскар»

Анимационный фильм Netflix под названием K-Pop Demon Hunters (Кейпоп-охотницы на демонов) получил премии «Оскар» в двух номинациях - «Лучший полнометражный анимационный фильм» и «Лучшая оригинальная песня». 98-я церемония вручения премий состоялась 15 марта в театре Dolby Theatre в Лос-Анджелесе. Производство корейско-канадского режиссёра Мэгги Кан конкурировало в первой номинации с фильмами «Зверополис-2» и «Элио» от Disney, «Арко» от Pixar, а также французской лентой «Маленькая Амели, или Характер дождя». Премии «Лучшая оригинальная песня» удостоена композиция «Golden» из оригинального саундтрека к фильму. Двойная победа на «Оскаре» последовала за предыдущими успехами - премиями «Золотой глобус» и Critics Choice Awards в январе, где фильм победил в тех же категориях. В феврале песня «Golden» удостоена премии «Грэмми». K-Pop Demon Hunters, вышедший 20 июня прошлого года, мгновенно стал хитом и самым просматриваемым фильмом Netflix за всю историю.

Фильм «Мир любви» будет показан на кинофестивале в Пекине

Фильм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режиссёра Юн Га Ын «Мир любви» будет показан в секции «Панорама» XVI Пекинского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кинофестиваля, который пройдёт с 16 по 25 апреля. Пекински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кинофестиваль проводится с 2011 года. Он является крупнейшим кинофорумом Китая и, наряду с Шанхайским международным кинофестивалем, считается одним из двух главных событий, представляющих китайскую киноиндустрию. Фильм рассказывает о 18-летней старшекласснице Чу Ин, которая отказывается участвовать в школьной кампании по сбору подписей под петицией. После этого она начинает получать таинственные записки. Оргкомитет фестиваля высоко оценил картину, отметив, что режиссёр Юн Га Ын с присущим ей тонким женским взглядом глубоко и детально передала внутренний мир юной девушки.

RKI

Ким Чен Ын наблюдал за учениями сверхкрупных РСЗО

КНДР сообщила о проведении ударных учений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новых 600-миллиметровых сверхточных реактивных систем залпового огня. За стрельбами лично наблюдал лидер страны Ким Чен Ын, а вместе с ним на мероприятии присутствовала его дочь Ким Чжу Э.

По данным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информагентства ЦТАК, учения прошли 14 марта с участием подразделений дальнобойной артиллерии западного района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й армии. В тренировке были задействованы 12 пусковых установок 600-мм реактивных систем и два артиллерийских подразделения.

Ким Чен Ын заявил, что цель учений заключается в том, чтобы армия «выполняла свои задачи», однако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оружие должно вызвать тревогу у «враждебных сил, находящихся в радиусе 420 километров».

Он также отметил, что такие системы позволяют противнику лучше понять разрушительную мощь тактического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Зарубежные эксперты считают, что упоминание дальности в 420 километров фактически указывает на предназначение системы для ударов по территории Южной Кореи. Как отметил старший научный сотрудник Корей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национальн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Сеул) Хон Мин, под угрозой оказываются ключевые авиабазы США 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ключая Пхёнхэк, Осан и Кунсан. По его оценке, «примерно 60-80 таких ракет могут парализовать основные авиационные силы на территории Южной Коре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СМИ сообщили, что снаряды поразили островную цель в Восточном (Японском) море

на расстоянии около 364,4 километра, заявив о стопроцентной точности попаданий.

Ким Чен Ын высоко оценил характеристики оружия, назвав его «очень страшным и привлекательным» и заявив, что в мире «нет тактического оружия, превосходящего эту систему».

Он также подчеркнул, что ядерные силы служат средством сдерживания, однако в случае невозможности предотвратить вторжение они могут быть использованы как «мощное разрушительное средство нападения».

По мнению южнокорейских специалистов, в учениях могла использоваться новая 600-мм система, презентация которой прошла в КНДР 18 февраля. Секретарь Корейского форума оборон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Сеул) Син Чжон У отметил, что впервые было упомянуто формирование батарей из шести установок в составе одного артиллерийского подразделения, что может свидетельствовать о постановке этих систем на боевое дежурство.

Между тем Объединенный комитет начальников штабов Южной Кореи сообщил, что днем ранее зафиксировал запуск более десяти ракет из района Сунан в сторону Восточного моря.

Южнокорейские наблюдатели также обращают внимание, что запуск произошел вскоре после заявления президента США Дональда Трампа о готовности к диалогу с Пхеньяном. Кроме того, он совпал по времени с проведением совместных американо-южнокорейских учений "Щит свободы" (Freedom Shield), которые начались 9 марта.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Россиянка подала иск на \$600 млн к Asiana Airlines из-за отказа в посадке

Гражданка России подала в США иск против южнокорейской авиакомпании Asiana Airlines, обвинив перевозчика в необоснованном отказе в посадке и потребовав компенсацию, включая штрафные выплаты в размере 600 млн долларов.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е дело рассматривается в федеральном суде Северного округа штата Калифорния.

Как сообщило южнокорейское издание "Сеул Ваио" со ссылкой на материалы суда, истцом выступает Яна Родионова, которая подала иск также против американской компании Sabre Global, оператора международной системы бронирования авиабилетов. Женщина утверждает, что действия авиакомпании привели к финансовым потерям и моральному ущербу.

Согласно иску инцидент произошел в феврале 2026 года в аэропорту Дананга (Вьетнам). Родионова вместе с несовершеннолетним ребенком проходила регистрацию на рейс Asiana Airlines Дананг - Инчхон. Этот перелет был частью более сложного маршрута: ранее она вылетела из Алма-Аты (Казахстан) в Сиера-Реал (Камбоджа), затем добралась до Дананга. Обратный путь предполагал перелет Дананг - Инчхон - Алма-Ата, после чего пассажирка планировала продолжить поездку.

На стойке регистрации сотрудники авиакомпании потребовали подтвердить наличие дальнейшего билета из Казахстана, в частности перелет из Алма-Аты в Россию. По словам истца, такой билет у нее был - на рейс российской авиакомпании.

Однако сотрудники Asiana не признали его, поскольку он не отображался в глобальной системе бронирования Sabre, которой пользуется перевозчик.

По версии Родионовой, требование подтвердить билет из Казахстана в Россию не относилось к ее теку-

щему маршруту и выходило за рамки стандартной проверки документов. Она утверждает, что в результате ей было отказано в посадке.

Как говорится в иске, после продолжительного спора сотрудник авиакомпании предложил купить возвратный билет другой авиакомпании, чтобы пройти контроль, а затем отменить его. Истец заявляет, что таким образом ее фактически вынудили приобрести дополнительный билет. Только после этого ей разрешили сесть на рейс в Сеул/Инчхон.

Родионова связывает возникшую ситуацию с международными санкциями против российских авиакомпаний. По ее словам, некоторые из них были исключены из глобальных систем бронирования, из-за чег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рейсы не отображаются в системе Sabre и могут не признаваться сотрудниками авиакомпаний при регистрации пассажиров.

В иске утверждается, что действия авиакомпании нарушили положения Монреальской конвенции, регулирующей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авиаперевозчиков за задержки и отказ в перевозке, а также нормы Чикагской конвенции о международной гражданской авиации. Кроме того, истец заявляет о возможной дискриминации по признаку гражданства.

Женщина требует возмещения прямых расходов, включая стоимость билетов и гостиницы, в размере около 3800 долларов, компенсации морального вреда и штрафных выплат в размере 600 млн долларов, что, по ее словам, составляет около 10% годовой выручки авиакомпании. От компании Sabre Global она также требует отдельные компенсации за моральный ущерб и штрафные выплаты.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Сеул глазами его иностранных обитателей

Сеул, 15 марта – ИА РУСКОР. Согласно ежегодному опросу, в 2025 году общий индекс удовлетворенности жителей Сеула вырос на 0,07 пункта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едыдущим годом и составил 6,61 из 10. При этом респонденты стали больше ценить зеленые зоны, хотя иностранные жители по-прежнему сообщали о трудностях с получением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услуг.

Опрос, проводимый мэрией Сеула с 2003 года, позволяет оценить качество жизни горожан и изменения в их ценностях на фоне меняющихся социальных условий. В этом году в опрос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20 000 семей, 5000 горожан и 2500 иностранных резидентов, проживающих в Сеуле. Показатели улучшились по всем категориям, включая здоровье, финансовое положение, семейную и социальную жизнь. Доля жителей, довольных зелеными зонами города, выросла на 8,3 процентных пункта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едшествовавшим годом и составила 63,4 %. Общая удовлетворенность общественным транспортом также повысилась: с 6,82 в 2024 году

до 7,04 в 2025 году. Среди семей, в которых есть дети дошкольного возраста, 90 % заявили, что довольны работой учреждений по уходу за детьми, таких как ясли и детские сады, что свидетельствует о высокой оценке городск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по уходу за детьми.

Иностранные жители высоко оценили уровень образования, социаль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и безопасности в городе. Городские власти связывают эти результаты с постепенным улучшением общих условий жизни в городе. Однако 31,3 % иностранных резидентов заявили, что им было сложно подавать гражданские иски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е органы, а 31,1 % отметили трудности с поиском экономических возможностей. «Мы продолжим внимательно следить за показателями, связанными с повседневной жизнью горожан, и усилим работу городских властей на основе данных, учитывая результаты опроса при разработке и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и политики», — заявила Кан Ок Хён, глава Бюро цифрового города столич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Губернатор проверил строительство новой подстанции в Корсакове

В ходе рабочей поездки в район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оверил ход строительства новой подстанции в Корсакове. Важный энергетический объект должен обеспечить надежное электроснабжение город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подстанции мощностью 80 МВт началось в январе 2025 года.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готовность объекта составляет более 60 процентов. Строители уже установили два силовых трансформатора на 110 кВ каждый и полностью проложили 20-километровый силовой кабель на глубину двух метров.

— Это ключевое звено для развития всего Корсаковского района. Все промышленные предприятия, которые здесь работают и планируют развиваться, а также новые жилые массивы будут получать электроэнергию именно с этой современной подстанции. Это позволит обеспечить надежное и бесперебойное электроснабжение как для действующих потребителей, так и для новых, которые появятся в перспективе,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Новый энергетический комплекс строят по современным технологиям, которые защитят сети от любых погодных условий. На объекте установят более 100 единиц оборудования отечествен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из Саратова, Воронежа, Чебоксар, Самары и других российских городов.

— По поводу электроснабжения у нас все хорошо - свет есть, газ тоже, все прекрасно работает. Но мы видим, как активно развивается наш город, появляются новые жилищные комплексы, растут микрорайоны. Конечно, для такого развития нужны новые подстанции и современные электрические сети. Это правильное и своевременное решение, — рассказала местная жительница Татьяна Манске.

На строительной площадке сейчас работают 20 человек и четыре единицы спецтехники.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ведутся работы по устройству канализации, монтажу контура заземления и отсыпке подъездной дороги. До конца года планируется завершить монтаж силов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и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территории.

Объекты энергохозяйства модернизируют и в других районах области. Сейчас специалисты обновляют 30 километров линий электропередачи на севере острова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по обеспечению устойчивой работы электросетевого комплекс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также ведутся работы по расширению ТЭЦ-1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где уже приступили к строительству шестого энергоблока

В Корсаковском районе построят газовую автозаправку

Во время рабочей поездки в Корсаковский район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овел встречу с жителями. Глава региона и министры област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тветили на вопросы, волнующие людей, а также нашли решения по личным обращениям граждан.

Наибольшее количество вопросов касалось состояния жилого фонда и перспектив переселения из аварийного жилья. Житель Корсакова Анатолий Дубов попросил ускорить сроки расселения барака, в котором он проживает.

— Я живу на улице Красноармейской, 78а. В 2022 году мой барак был признан аварийным. Срок переселения — 2028 год, но следующую зиму я в нем не переживу. Можно ли мне получить жилье раньше? — обратился Анатолий.

Прямо во время встречи профильное министерство совместно с муниципалитетом подобрало мужчине квартиру взамен старой. Новоселье он справит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Глава области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программа по переселению из аварийного фонда будет продолжена во всем регионе.

—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одной из первых в России досрочно выполнила первый этап программы. Расселены все жители, чьи дома были признаны непригодными для жизни в 2022 году и ранее. Программа обязательно будет продолжена. Для этого вводятся новые дома, в которых регион будет выкупать квартиры для переселения людей,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Жители района интересовались и перспективами газификации.

— У меня машина на газу. Экономично? Да. Но неудобно. У нас нет заправки, — рассказала участница встречи Ирина.

Уже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условия для владельцев газовых автомобилей станут комфортнее.

— В Корсаковском районе сейчас работает один передвижной автозаправщик, в апреле начнет работать второй. И хорошая новость: уже в пути оборудование для строительства газовой заправки в Корсакове. Работы будут закончены в 2027 году,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министр энергетик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митрий Куварин.

Поблагодарить главу региона лично пришел участник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Александр.

— Валерий Игоревич, в 2022 году вы провозили меня на СВО, сейчас я нахожусь в отпуске. Хочу выразить благодарность вам и всем сахалинцам от нашего штурмового отряда, который сейчас находится в Запорожской области, за все, что вы делаете для нашей Родины. Отдельное спасибо за помощь моей семье. Пока я служу, жене помогли газифицировать дом, чтобы она не топила дровами и углем. Когда погиб наш сын, вы и администрация района отнеслись к этому безразлично и оказали поддержку, — поделился Александр Васильевич.

На встрече прозвучали просьбы об улучшении дорож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 В Охотском замечательная набережная, но есть у нас

небольшая проблема. Море подмывает дорогу возле моста через пролив Красноармейский. Большая просьба оказать содействие в ее ремонте, — обратился местный житель.

В 2025 году уже были проведены работы по восстановлению размытого участка дороги и его защите от волнового воздействия. Министр транспорта и дорожного хозяй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аксим Жоголев отметил, что 2027 году будут выполнены проектно-изыскательные работы для последующей реконструкции автодороги.

От педагогиче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и родителей школьников поступила просьба установить светофор перед школой № 1 в районном центре.

— Дорога в школу проходит между двумя остановками. Когда стоят автобусы, закрывается обзор и людям, и автомобилистам. Дети постоянно подвергаются опасности. Это очень важный вопрос. Он рассматривался на комиссии по дорожному движению, но никаких результатов это не дало, — рассказала педагог Ирина Дыбская.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ручил главе района Наталье Курчиной проработать вопрос совместно с полицией и оснастить дорогу автоматическим регулятором до 1 июня.

Кроме того, после обращений корсаковцев глава региона поручил направить в район команду проекта «Губернаторский контроль». Задача ревизоров — проверить качество расчистки дворовых территорий от снега и выявить риски их подтопления талыми водами.

По всем обращениям, прозвучавшим во время встречи, губернатор дал конкретные поручения. Они будут оставаться на контроле до полного исполнения.

Три часа для себя: в помощь сахалинским мамам открыли специальные группы в детских садах

Во время рабочей поездки в Корсаковский район глава региона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сетил дошкольное учреждение «Солнышко». Благодаря губернаторской программе «Счастливое материнство» здесь появилась группа кратковременного пребывания детей. Мама может на несколько часов оставить малышек с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ми нянями и посвятить время себе.

В Корсакове в декабр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открылась одна из первых таких групп. У мам появилась возможность выделить три часа в день на себя — сходить в поликлинику или салон красоты, навести порядок дома, посетить тренировку или просто отдохнуть. А малыши в это время приобретают первый опыт общения в коллективе и припекают к детскому саду.

Младшему сыну Евгению Черкасовой — один год и четыре месяца. Открытие группы кратковременного пребывания стало для нее поводом раньше вернуться на любимую работу.

— Я учитель и за три часа успеваю очень много. Сначала пью кофе в тишине, иду на работу, а потом начинаю скучать по малышу и бегу за ним. В ясли отдать ребенка я пока морально не готова, поэтому группа для нас — идеальный вариант. Услуга бесплатная. И педагоги прекрасные! — поделилась молодая мама Евгения Черкасова.

Сегодня группы кратковременного пребывания для малышей в возрасте от года до двух лет действуют во всех района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ни работают в двух детских садах. В остальных районах определили по одному учреждению.

— О детях заботятся сертифицированные няни, которые обучились в нашем университете. В прошлом году подготовку прошли 300 человек, в этом году планируем выпустить еще 400,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Группы в Корсакове сегодня регулярно посещают 10 малышей. Услуга востребована, поэтому обучение в «Школе нянь» проходят еще две сотрудницы «Солнышка».

— Я всегда мечтала работать с малышами. Была младшим воспитателем, сейчас учусь на воспитателя на четвертом курсе и параллельно прошла сертификацию в «Школе нянь». Мы изучали педагогику и психологию, навыки ухода за детьми, оказание первой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Много как теории, так и практики. Стараюсь вкладывать в работу всю душу, чтобы дети и родители были счастливы, — поделилась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ая няня Наталья Никулина.

Получить подробную информацию и подать заявку на посещение групп можно на портале «Счастливое материнство».

Сахалинские пациенты начали получать медицинскую помощь, на которую прежде рассчитывали только в федеральных центрах

В рамках развития хирургического кластера в травматолого-ортопедическом отделении городской больницы им. Анкудинова сегодня начали использовать новые эндопротезы для тазобедренного и коленного суставов. Первые операции местные врачи провели совместно с приезжими специалистами из Владивостока и Новосибирска. Благодаря развитию хирургического направления помощь стала доступна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ранее проведение этих операций было возможно только за пределами области.

Эндопротезы существенно облегчают жизнь пациентам при тяжелых заболеваниях, которые не поддаются консервативному лечению. Они устраняют боль и возвращают подвижность при тяжелых формах остеоартрита, переломах шейки бедра и выраженной деформации сустава. Своевременное вмешательство помогает избежать инвалидности и вернуть способность свободно передвигаться.

— В прошлом году мы выполнили около 400 операций по эндопротезированию. Сейчас начнем работать с новыми материалами, которые позволят быстрее восстанавливаться после вмешательства. Уже через несколько месяцев пациенты смогут вернуться к привычному образу жизни и заниматься спортом, — рассказал заведующий травматолого-ортопедическим отделением городской больницы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им. Ф.С. Анкудинова Артур И.

Одним из первых новый эндопротез получил житель островного центра Максим Болгов. Год назад мужчина травмировал ногу на работе, со временем состояние начало ухудшаться. Врачи диагностировали некроз тазобедренного сустава.

— Возможность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ходить сейчас практически отсутствует. Боль распространяется по всей ноге и спине. Есть страх и тревога перед операцией, конечно. Но врачи уверяют, что спустя несколько месяцев смогу вернуться к нормальной жизни, — поделился впечатлениями Максим Болгов.

Около полутора часов требуется специалистам, чтобы полностью заменить пациенту тазобедренный сустав. Операция требует высокой точности исполнения. Но гости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высоко оценивают уровень оказания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 сказывается не только опыт местных врачей, но и постоянное участие в обмене знаниями с коллегами из других регионов.

— Я на Сахалине не первый раз и знаю, что медицина здесь на высоком уровне, работают высоко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е сотрудники. Островные врачи открыты к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 сами выезжают в другие регионы и приглашают экспертов к себе. Это отличная позиция, потому что без постоянной коммуникации внутри медицин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невозможен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й рост, — отметил травматолого-ортопед из Новосибирска Николай Загайнов.

Развитие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ой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в рамках нацпроекта «Продолжительная и активная жизнь», которую инициировал президент РФ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Поддержку на всех этапах оказывает также партия «Единая Россия». Хирургический кластер только набирает обороты — он станет одним из элементов устойчивого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в регионе, где пациенты смогут получать необходимую помощь рядом с домом.

В областном реабилитационном центре внедрили нов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ая аппаратура для реабилитации тяжелых больных появилась в медицинском учреждении. Оборудование установлено в реанимационном отделении, помогает в восстановлении после инсультов, операций на спинном и головном мозге, тяжелых травм.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Оптимальная для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здоровья медицинская реабилитация» нацпроекта «Продолжительная и активная жизнь», инициированного Президентом Владимиром Путиным, за последний год в центр поступило 19 единиц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ой техники. Дополнительно учреждение получило еще 5 аппаратов, дающих новые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организма.

Жительниц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Татьяна Терещенко попала в областной реабилитационный центр после инсульта, сразу была подключена к аппарату искусственной вентиляции легких. Женщина была полностью обездвижена, не могла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дышать. После курса реабилитации прогноз оставался неясным, медики не останавливались — назначили еще один цикл. И спустя несколько недель южносахалинка начала дышать без аппарата, глотать, к ней вернулась подвижность конечностей, сегодня она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пошла в поликлинику на амбулаторные процедуры.

— Современн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играет большую роль в восстановлении после острой сосудистой катастрофы. Например у нас есть роботизированные аппараты механотерапии для верхних и нижних конечностей. Принцип их работы заключается в подключении датчиков и считывании информации с организма лежачего человека и настройке под него упражнений. Сначала микродвижений, постепенно они усложняются, а у больного включаются угасшие функции, — рассказала заведующая отделением реанимации областного реабилитационного центра Галина Жукова.

С каждым из пациентов работает мультидисциплинарная реабилитационная команда специалистов. Занятия включают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не только физических показателей, но и когнитивных функций.

— Реабилитация наших пациентов включает профилактику нарушений сенсорной депривации, а также соблюдение циркадных ритмов. Днем они бодрствуют, рисуют, слушают музыку, ночью спят. Психосоциальное состояние улучшается, и на этом фоне общее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идет эффективнее, — отметила заместитель главного врача Наталья Кривенко.

В прошлом году медицинскую помощь в реанимационном отделении ОРЦ прошли около 50 человек. Из них двое — участники СВО. Напомним, Сахалинский областной реабилитационный центр включился в комплексное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бойцов с начала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регион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для участников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упрощен порядок прохождения медицинской реабилитации. Кроме того, развитие системы медицинской реабилитации — это личная инициатива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Президент поручил, чтобы высокие технологии были доступны жителям не только в столичных клиниках, но и в регионах.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우리는 한민족, 생명 나눔으로 이어진 연대” ...국내 귀환 동포와 함께한 헌혈

재외동포청 · 동포단체 헌혈 행사 개최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3월 17일 인천 송도 부영송도타워에서 국내 귀환 동포와 함께하는 헌혈 행사를 열었다. 국내 귀환 동포와 내국인이 함께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 교류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정부 기관과 동포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나눔 활동을 통해 국내 귀환 동포와 지역사회가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화합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추진했다.

대한고려인협회(회장 정영순)와 중국동포단체협의회(의장 김세광) 관계자 등 국

내 귀환 동포 18명이 참석했으며, 재외동포청 직원들도 함께 참여해 생명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헌혈 행사 이후에는 재외동포 웰컴센터에서 재외동포청 직원들과의 간담회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국내 생활과 정착 과정에서 경험을 공유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재외동포청 관계자는 “이번 헌혈 행사는 국내 귀환 동포와 우리 사회 구성원이 함께 생명을 나누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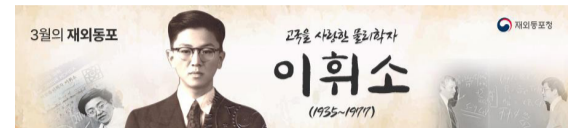
으로도 동포 사회와의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한민족으로서 국내에 귀환한 동포들이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조속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청은 앞으로도 국내 귀환 동포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동포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재외동포청 제공)

세계 물리학 발전에 기여한 '한국의 오펜하이머, 이휘소'

재외동포청, 2026년 3월
'이달의 재외동포' 로 故이휘소
물리학자 선정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세계적인 물리학자 故이휘소(1935-1977) 박사를 2026년 3월 '이달의 재외동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휘소 박사는 현대 물리학 발전에 큰 영향을 준 과학자로, 미국 페르미가속기연구소 이론물리학부장을 지내며 세계 물리학계에서 중요한 연구를 수행했다.

젊은 나이에 세계적인 물리학자로 성장한 이휘소 박사는 1952년 서울대학교 화학공학과에 입학한 뒤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물리학 연구를 시작했다.

유학 1년 반 만에 미국 마이애미대학교 물리학과를 최우등으로 졸업했고, 만 24세의 나이로 펜실베이니아대학교에서 물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한국인 최초로 프린스턴 고등연구소 연구회원을 지냈으며, 1973년에는 미국 페르미가속기연구소 이론물리학부장에 올라 세계적인 물리학 연구를 이끌었다.

그는 왕성한 연구 활동과 뛰어난 연구 성과를 이어나가던 중 불의의 사고로 42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현대 물리학의 지평을 넓힌 큰 업적 이휘소 박사는 짧은 연구 기간에도 불구하고 140여 편의 논문을 발표했고, 인용 횟수가 1만여 회가 넘는 논문이 60편에 이를 정도로 세계 이론물리학을 선도했다.

특히 입자물리학의 핵심 이론인 '게이지 이론'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그의 연구는 이후 여러 과학자의 노벨 물리학상 수상 연구에도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 게이지 이론(Gauge Theory) : 현대물리학, 특히 입자물리학의 표준 모형을 지탱하는 가장 핵심적인 원리로, 어떤 물리학적 대상을 바라 보는 기준(gauge)을 바꾸더라도 실제 물리 법칙은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대칭성에 기반한 이론

* 재규격화(Renormalization) : 무한대 값을 유한한 실제 값으로 바꿔주는 계산 기술

또한 '참 쿼크(Charm quark)'라는 새로운 입자의 존재 가능성을 예측하는 연구에도 참여해 현대 물리학 발전에 중요한 이론적 기반을 마련했다.

* 쿼크(quark) : 물질을 구성하는 단위 중 현재까지 발견된 가장 작은 입자. 총 6가지로 2개씩 짝지어 3중류로 분류(up/down, charm/strange, top/bottom)

* 참 쿼크(Charm quark) : 쿼크 중 3번째로 무거운 쿼크

우리나라 기초과학 연구 진흥에 기여 이휘소 박사는 해외에서 연구 활동을 이어가면서도 한국 과학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미국 국제개발처(AID) 교육차관 사업을 통해 서울대학교의 이공계 교육 발전을 지원하고 연구 장비 확충에도 도움을 주었다.

또 재미한국과학기술자협회(KSEA) 부회장을 맡아 미국 내 한국인 과학자들의 교류와 협력에도 힘썼다.

세계 과학계가 인정한 한국 과학자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이휘소 박사는 ‘한국의 오펜하이머’라 불리며 과학적 성취를 통해 한국인의 위상을 높였다”며, “그가 보여준 학문에 대한 열정과 고국에 대한 애정은 오늘날 많은 과학자와 청년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청 제공)

H2, F4 비자통합 한달... “현실에 맞게 제도 개선해야”

전문가들, 13일 제1차 다(多)가치포럼서 통합 이후 혼선 · 정착 과제 집중

(3면의 계속)

강 과장은 한국어 능력과 체류기간을 연동하는 방안도 설명했다. 한국어 능력이 입증되지 않으면 1년,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중이면 2년, 한국어 능력이 입증되면 3년의 체류기간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그는 “동포 세대가 3·4세대로 내려오며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늘고 있어 한국어와 사회통합을 제도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F-4에서 제한했던 단순노무 47개 직종 가운데 10개 직종의 취업을 허용했고, H-2 시절 하던 일을 F-4 전환 후에도 계속하려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영주권 취득 요건 완화도 소개됐다. 강 과장은 자원봉사와 한국어 능력을 충족할 경우 소득 요건을 낮춰 적용하는 인센티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내용은 곧바로 현장의 집중 비판으로 이어졌다.

주성만 중국동포한마음연합총회 사무국장은 “이번 통합 정책의 방향성 자체는 매우 바람직하다”면서도 “정책의 방향이 아무리 좋아도 현장의 현실과 맞지 않으면 효과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영주권 완화 기준으로 ‘6개월간 100시간’인센티브 조건은 “현실적으로 6개월 안에 100시간을 채우기는 매우 어렵다”고 시정을 요구했다.

주 사무국장은 이어 ▲F-4가 오히려 일부 직종 취업을 제한하는 구조, ▲F-1·F-3 가족비자의 취업 불가 ▲자녀가 영주권이나 국적을 취득해도 부모는 역으로 혜택을 받기 어려운 체계 ▲가족 단위 건강보험료 부담 등을 대표적 문제로 꼽았다. 그는 “동포단체를 단순 정책 대상이 아니라 정책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며 “동포 관련 부서에 동포 출신 직원을 채용할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

박동찬 경계인의몫소리연구소장은 이번 통합을 “발전이라기보다 비정상적 정상화”라고 규정했다. 박 소장은 “방문취업제는 특정 동포집단에 대한 정부 주도 공적 차별의 상징이었다”며 “1999년 재외동포법이 중국·구소련 동포를 배제했던 역사와 2007년 방문취업제의 도입 과정 자체가 차별의 연장선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어 능력에 따라 체류기간을 차등 부여하는 방식은 자발적 학습 유도라기보다 체류안정을 볼모로 한 강제에 가깝다”며 “사회통합프로그램 공급이 수요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한국어 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 소장은 또 “국민 일자리 침해라는 명분이 반복되지만 실제로 동포나 이주노동자가 어떤 규모로 어떤 일자리를 얼마나 잠식했는지에 대한 통계는 없다”며 “법무부와 재외동포청이 팩트에 기반한 통계를 생산해 가짜 국민정서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체류기간은 기본적으로 넉넉히 보장하고, 한국어·사회통합·봉사는 제재가 아니라 인센티브 방식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정영순 대한고려인협회 협회장은 고려인 공동체의 특수성을 짚었다. 그는 “고려인들은 개인보다 가족 단위 이주가 많고, 배우자 중 한 명이 비한국계인 경우도 적지 않다”며 “이 경우 F-1 또는 F-3 비자를 받는데 합법 취업이 허용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비공식 노동시장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인구감소지역 유치 정책과 관련해 “지역에 정착 인프라와 행정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가족 단위 이주가 이뤄지면 오히려 새로운 불안정과 브로커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어 문제에 대해서도 “중양아시아 고려인 상당수는 러시아어 중심 교육한

경에서 자라 사실상 한국어를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하지만, 한국에 오자마자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해 체계적 학습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청 측은 비자 통합 이후 정착지원 체계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창원 재외동포청 귀환동포정착지원과장은 “재외동포청은 올해 1월 귀환동포정착지원과를 정식 직제로 신설했다”며 “동포를 단순 외국인인 아니라 역사적·문화적 동질감을 가진 한민족 구성원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자체와 동포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동포 인재 유치 장학사업, 취업 연계형 교육 지원 등을 소개하며 “동포 여러분이 계속 목소리를 내주시면 적극적으로 경청하겠다”고 했다.

현장 질의응답에서는 실무 혼선에 대한 불만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여행사·행정사 관계자들은 동포 입증서류 제출 기준이 출입국사무소마다 달라 혼란이 크다고 지적했다. 하이코리아 공지와 현장 접수 기준이 다른 데다 1345 상담 내용도 일치하지 않아 동포들이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또 F-4 전환 뒤 기존 취업자들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사실이 충분히 홍보되지 않아, 제도를 모르고 일하다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고령 동포들이 하이코리아 예약과 온라인 절차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건강보험 문제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참석자들은 H-2·F-4 소지자가 재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영주권자나 내국인과 비교해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층에서는 장학사업과 취업지원 확대, 창업 지원 검토, 동포 사회 활동에 대한 가산점 부여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 재외동포청은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일부 제안에 대해 검토 가능성을 열었다.

포럼 말미에는 대통령과의 직접 간담회 요청도 나왔다. 참석자들은 동포정책의 근본적 변화는 최고 지도자의 인식 전환에서 시작된다고 보고, 동포사회가 대통령과 직접 소통할 기회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재외동포청은 관련 의견이 청와대에 전달될 경우 적극적으로 동포사회의 뜻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강영우 과장은 마무리 답변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 수요와 공급 문제, 영주 심사 적체, 봉사시간 기준 등은 현장 상황을 보며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며 “동포 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내에서의 안정적 정착과 국민 인식 개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어와 봉사활동 요건도 그런 취지에서 설계했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0년된 제도를 바꾸고 새로 만드는 과정에 시행착오나 일부 미비점도 양해를 부탁했다.

이 날 포럼은 H-2 폐지와 F-4 중심 전환이 동포사회 오랜 요구의 결실이라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제도 통합만으로는 동포사회의 삶이 곧바로 나아지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줬다.

참석자들은 체류관리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정착지원과 사회통합 중심으로 정책 틀을 바꾸고, 현장이 감당할 수 있는 세부 기준과 행정 시스템 정비가 병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재외동포신문)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특수군사작전 참전용사·가족, 사할린주 미술관 무료 관람

특수군사작전 참전 용사들이 '조국의 깃발 아래, 하나 된 대오에서' 전시회에 초청돼 관람 투어에 참여했다.

이번 문화 행사는 '조국 수호자' 재단 사할린 지부가 주최했다. 군인들과 그 가족들은 여러 시대의 전쟁을 하나의 서사로 엮어낸 대규모 전시를 관람했다. 이 프로젝트에서 예술가들은 회화와 그래픽 작품을 통해 러시아의 역사를 풀어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사할린 지부 홍보실이 전했다.

'조국의 깃발 아래, 하나 된 대오에서' 전시회 출품작 가운데 상당수는 1812년 조국전쟁, 위대한 조국전쟁, 그리고 현대의 특수군사작전을 주제로 했다. 주 미술박물관에는 역사적 장면, 영웅들의 초상, 일상의 서사를 담은 작품들이 전시됐다.

특수군사작전 참전 용사 알렉산드르 보가티료브는 전시 관람 후 "이번 전시회는 폭넓은 구성으로 인상적이면서도, 각기 다른 시대에 조국을 적으로부터 지켜낸 영웅들을 함께 조명하고 있습니다. 예술가들은 승리를 이뤄낸 위대한 선조들을 상기시키는 한편, 오늘날 서방의 침략자들에 맞서고 있는 현대의 전사들을 그들과 같은 대오 위에 세웠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Ветераны СВО и их семьи бесплатно посетили Сахалинский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музей

Им провели экскурсию по выставке «Под стягом Отечества. В едином строю».

Культур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организовали сотрудники фонда «Защитники Отечества». Военнослужащие и члены их семей побывали на масштабной выставке, объединившей войны разных эпох в единое повествование.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художники рассказали историю России на языке живописи и графики. Подробно-

сти опубликова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филиала фонд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начительная часть работ на выставке «Под стягом Отечества. В едином строю» посвящена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е 1812 года и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е, а также современной СВО. В областном художественном музее представили исторические сцены, портреты героев и бытовые сюжеты.

«Выставка поражает широтой охвата и в то же время показывает отдельные личности героев, в разные времена защищавших Отчизну от врагов. Художники решили напомнить нам о великих предках, ковавших победы в разные времена, и поставили с ними в один строй современных воинов, которые сейчас стоят между миром и западными агрессорами», — поделился впечатлениями после экскурсии ветеран СВО Александр Богатырев.

사할린 동물원 곰들, 야생 곰보다 한 달 일찍 겨울잠 깨

동물원 곰들이 야생 곰보다 약 한 달가량 일찍 겨울잠에서 깨어나, 현재 말린 과일과 꿀, 사과 등 특별 식단으로 체력을 회복하고 있다. 사할린 동식물원에 봄이 찾아왔다. 타이가의 상징인 이곳의 곰들이 보통 3월 말이나 4월 초에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야생 곰보다 먼저 잠에서 깬 것이다.

곰의 긴 겨울잠은 자연이 부여한 방어적 메커니즘이다. 겨울철 숲에서는 먹이가 급격히 줄어들는데, 곰의 식단 가운데 80%는 열매, 풀, 나무껍질, 솔방울, 버섯 등 식물성 먹이로 이뤄져 있다. 이 때문에 곰은 5~6개월 동안 동면하며, 그 사이 먹거나 마시지 않은 채 체중이 최대 40%까지 줄어들 수 있다.

봄철 식단은 주로 말린 과일, 견과류, 사과, 당근, 식물성 기름, 꿀 등 소화가 쉬운 먹이로 구성된다.

따라서 곰들은 깨어난 직후 매우 배가 고프지만, 처음부터 많은 양의 먹이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동물원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 가장 중요한 일은 동물들의 소화 기능을 서서히 회복시키고 에너지를 보충하는 것이다. 깨어난 뒤 처음 며칠 동안 곰들에게는 하루 5~6kg가량의 먹이를 주는데, 이

는 평소의 절반 수준이다.

동물원 곰마다 먹이 취향도 제각각이다.

동물부 부장 안나 노위코와는 "곰마다 각자의 취향이 있다. 율리아는 진정한 숙녀답게 단 음식을 좋아해 견과류와 꿀, 과일, 채소를 잘 먹는다. 반면 이완은 신사답게 고기와 생선을 선호한다. 요자는 뭐든 잘 먹지만 특히 견과류를 가장 좋아한다"고 말했다.

На Сахалине медведи в зоопарке проснулись раньше диких

Косолапые постояльцы проснулись на месяц раньше своих лесных сородичей и сейчас восстанавливают силы с помощью специальной диеты из сухофруктов, меда и яблок. Весна в Сахалинском зооботаническом парке началась с пробуждения главных символов тайги. Местные медведи уже вышли из зимней спячки, опередив своих лесных сородичей, которые обычно просыпаются только в конце марта или начале апреля.

Длительный сон косолапых — это защитный природный механизм. Зимой в лесу катастрофически не хватает кормовой базы, ведь рацион медведя на 80% состоит из растительной пищи: ягод, травы, коры, шишек и грибов. Находясь в спячке от 5 до 6 месяцев, хищники не едят, не пьют и могут потерять до 40% своего веса.

Поэтому просыпаются мишки очень голодными, но перегружать их желудки сразу нельзя. Как отмечают специалисты зоопарка, сейчас главная задача — аккуратно запустить работу пищеварительной системы животных и напитать их энергией. В первые дни после пробуждения косолапым дают небольшие порции — около 5-6 кг еды в день, что составляет лишь половину их обычной нормы. В весеннем меню преобладают легкоусвояемые продукты: сухофрукты, орехи, яблоки, морковь, растительное масло и мед.

У каждого постояльца зоопарка есть свои кулинарные предпочтения.

«У всех свои вкусы. Наша Юля, как истинная леди, любит сладкое: орехи, мед, фрукты и овощи. А вот Ваня, как настоящий джентльмен, предпочитает мясо и рыбу. Ёжа любит все, но ее главная слабость — это орешки», — рассказала заведующая зоологическим отделом Анна Новикова.

(러시아 및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026 год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147 руб. 66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МЕБЕЛЬНАЯ ФАБРИКА 1+2 КУПИ ДИВАН - ПОЛУЧИ ПОДАРОК!

ул. Украинская, 58, тел.: 77-77-00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p>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 (주필) 배 워토리아</p>	<p>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p> <p>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p> <p>E-mail: skr@sakhalin.ru</p> <p>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p> <p>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8-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3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p> <p>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p> <p>50 раз в год.</p> <p>Индекс ПР575</p> <p>Тираж 11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
---	---	---	---	--	---